

### 남동구, '통합돌봄 퇴원환자

### 지역사회 연계사업'업무협약

남동구는 최근 지역 내 5개 의료기관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국제바로병원 ▲봄남요양병원 ▲울림피아병원 ▲인천현전종합병원 ▲효민요양병원 총 5개소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퇴원 후 재가 생활을 앞둔 65세 이상 남동구민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이 퇴원 전 단계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남동구로 의뢰하면, 남동구는 보건·의료 및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복지 서비스를 즉시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남동구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병원이 표준 서식(선별평가표, 통합지원신청서 등)을 완비하여 환자를 의뢰할 경우, 병원 측에 연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와 병원은 불필요한 재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재가 중심' 돌봄 모델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병원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 환자의 퇴원 이후 삶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병원 문을 나서서 순간부터 지역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 예방' 민관 합동 단속 실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6일 동인천 북광장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술·담배 판매 등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동구 시민명예감시단 등 1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단은 동인천 북광장 인근의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출입 및 고용 여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준수 여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안내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관련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스티커를 배부하고 즉시 부착하도록 계도했다. 업주와 종사자들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규정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 대한민국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도시. 인천

#### 삶의 질 개선도 전국 1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

#### 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출산 장려...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효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최근 월간중앙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정주 여건 분석에서 삶의 질 개선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대비 2024년 까지 경제활력·보건안전·인구사회·보육교육 등 4대 분야의 변화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인천시는 보건안전과 인구사회 개선이 전체 상승(+10:33→43)을 견인했다.

특히 이번 결과는 단순한 현재 수준이 아닌 '얼마나 빠르게 좋아졌는'가를 평가한 것으로, 인천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대표 도시임을 의미한다.

인천의 변화는 경제, 복지, 안전, 인구 등 도시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1인당 개인소득이 4년간 약 20% 증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시민 체감 소득이 함께 상승했다.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산업,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투자 유

치,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이 지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보건·안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졌다.

의료 접근성 개선 정책을 통해 미충족 의료율이 감소하고, 섬 지역을 포함한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이 확대됐다.

동시에 정신건강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민 스트레스 인지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지표가 개선됐다.

인구 분야에서는 더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총인구 증가율과 순 이동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출산·양육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실제 정주 매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도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긴급·야간

돌봄 확대, 아동수당 확대를 선도하는 정책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은 도시 성장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며, 단순한 발전을 넘어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는 숫자상의 성과를 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인천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 복지 확대, 안전 강화, 돌봄 체계 구축까지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의 삶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변화를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시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 계양구, 신학기 맞아 초등학교 학습교재 지원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학습교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가정 학습을 통한 기초학업 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 3월 4일에서 6일까지 모바일 신청을 받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국어·수학 교재를 지원했으며, 총 91명에게 182권의 교재를 지원했다. 또한 ㈜서협문고의 택배비 후원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배송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학기 초 학습 준비

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추진돼 아동들이 가정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신학기 준비에 필요한 교재를 제때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아이의 학습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학습교재 지원이 아동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정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초지대교 일원 상습 교통정체 개선 추진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초지대교~초지교차로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차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지대교는 2002년 개통 이후 수도권과 강화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주말, 관광 성수기마다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반복적인 정체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강화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상습 정체구간 교통환경 개선 용역'을 시행하여, 방향별 교통량 분석과 다양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입체교차로(지하차도) 설치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차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인천시로부터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4월 공사에 착수해 약 2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고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지대교에서 동검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좌회전 차로를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여 교통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온수리에서 초지삼거리 방향 구간에는 유도 차선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분리하고 교차로 내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강화군으로의 유입 차량이 많은 오전 시간대(9시~14시)에는 유입 방향 신호 시간을 확대하고, 유출 차량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16시~20시)에는 유출 방향 신호 시간을 늘려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초지교차로 일대 도로를 전면 재포장하고, 차선 및 유도선을 재도색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주행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BTS 광화문 공연 대규모 인파 대비 '학생 안전사고 예방' 총력

#### 기상청의 폭염 대응체계 강화에 발맞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대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21일 서울 광

화문 일대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공연과 관련하여,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교육청은 각 가정과 학교에 상황별 대응 지침이 담긴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 행동요령'을 배포했으며, 학생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2(실종·범죄) 또는 119(안전사고·부상)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섰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주야간 24시간 대응 가능한 학생 안전사고 비상 연락 체계(☎032-420-8343-4)를 운영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기상청의 폭염 대응체계 강화에 발맞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청은 6월부터 일 체감온도 38°C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C 이상이 예상될 경우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름철 대비 학교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염상황에 따라 야외활동 조정 및 학사운영 탄력화 등 현장중심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심하린 기자

### NH농협은행 인천 직원일동, 고향사랑기부금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9일 NH농협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최원준) 직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인천본부는 평소 지역 봉사나 나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왔으며, 웅진군과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NH농협은행 인천

본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해 웅진발전을 응원해 오고 있다.

최원준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진심과 함께 이번 기부가 웅진군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웅진군과 협력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NH농협은행 직원들의 따뜻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농업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남양주시 왕속 도시침단신입단지 투지유치실명회

2026. 03. 25. WED. PM 2:00 엘타워 5F 오르체홀 서울시 서초구

- | 주요 프로그램 |
- 투자환경 및 비전 제시
- 분양정보 및 투자 인센티브 안내
- 투자사례 발표 (우리은행/카카오)



02.23.MON.  
|  
03.20.FRI.  
사전접수

주최/주관 : 남양주시 문의 : 남양주시 전략산업과 031-590-7383,8646 참가신청 : QR코드로 사전접수 왕속도시침단신입단지에서마지막퍼즐을맞추다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에서 기회를 잡으세요  
남다른 선택 양질의 미래 주목받는 투자도시, 남양주

- 신한금융그룹 AI 인퍼니티 센터
-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 kakao 디지털 허브

